

북한개발소식

2023 NOV

11

통권 217호

이달의 주제

최근 북러 관계 변화와 북한선교

탈북민 수기

이끄심 - 11화 - 하나님의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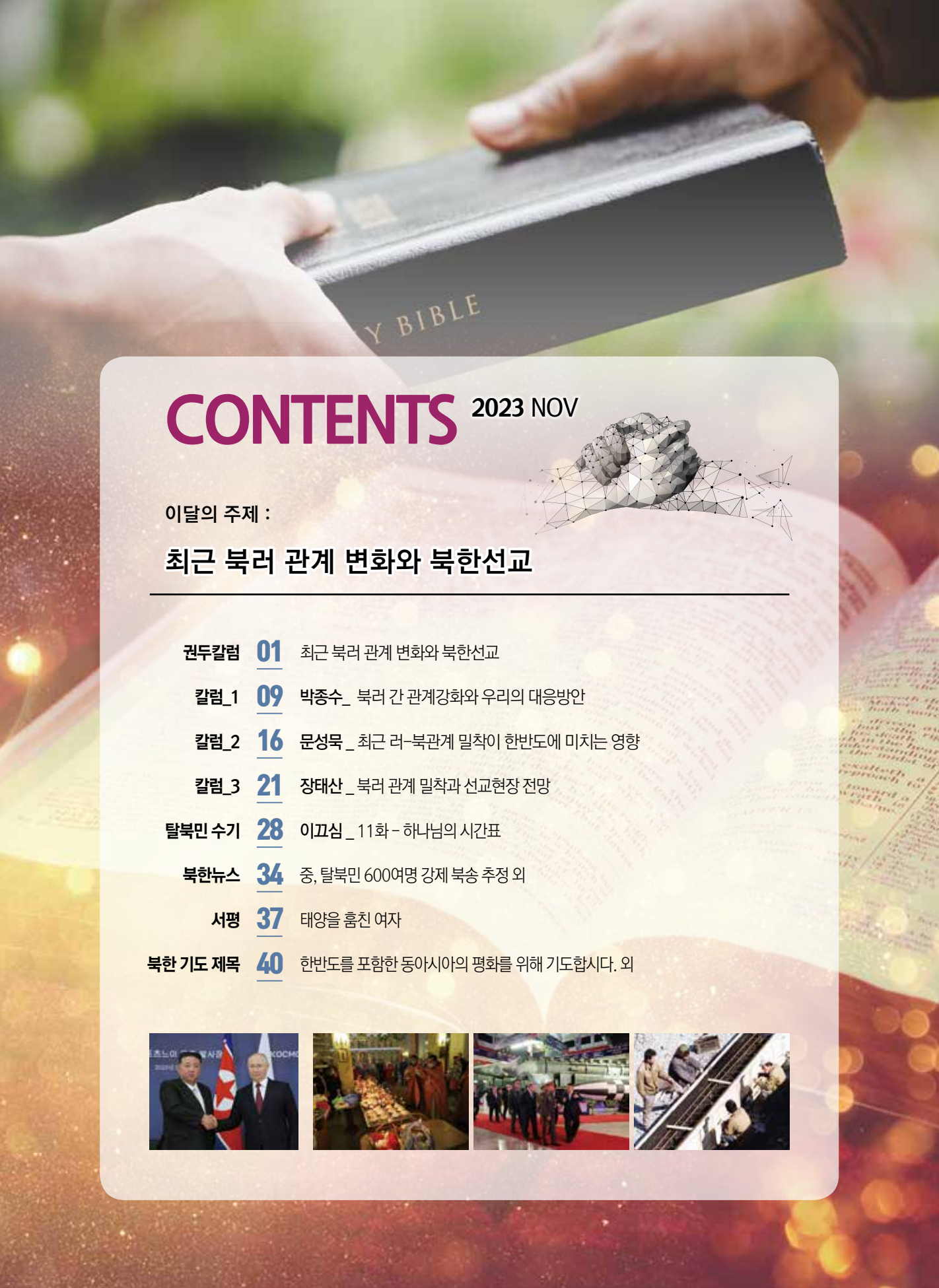
북한뉴스

중,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 추정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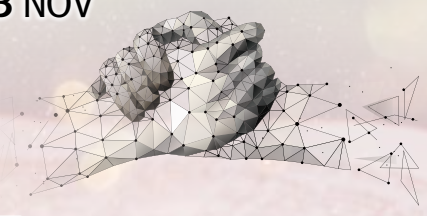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3 NOV



이달의 주제 :

최근 북러 관계 변화와 북한선교

- 권두칼럼 **01** 최근 북러 관계 변화와 북한선교
- 칼럼_1 **09** 박종수_ 북러 간 관계강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칼럼_2 **16** 문성묵_ 최근 러-북관계 밀착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칼럼_3 **21** 장태산_ 북러 관계 밀착과 선교현장 전망
- 탈북민 수기 **28** 이끄심_ 11화 - 하나님의 시간표
- 북한뉴스 **34** 중, 탈북민 600여명 강제 복송 추정 외
- 서평 **37** 태양을 훔친 여자
- 북한 기도 제목 **40**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외



권두칼럼

최근 북러 관계 변화와 북한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최근 북러 관계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을 맞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대표로 방북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었고, 모종의 군사 협력 추진이 그 이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어 9월 13일에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해외 방문길로 러시아를 택하면서 최근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면, 러시아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택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비공식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회담 결과나 합의문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사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 등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러시아 고위급의 언급을 인용하여 나오고 있다. 북러 관계 밀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앞으로 북러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선교 현장에 미칠 영

향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현 상황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최근 북러 밀착 관계의 동인

과거 북러 관계를 돌아켜볼 때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보여주는 관계 변화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우방으로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제한적이었다. 북한이 노동력을 러시아로 상당 규모 파견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하자원의 수출 비중이 큰데,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원 수출국이다보니 경제 구조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여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극동러시아 지역과 연계한 두만강 지역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양국의 필요가 맞아들여가기 시작했다. 전쟁 지속을 위한 충분한 탄약 공급이 필요한 러시아와 계속된 군사 위성 발사 실패 등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필요가 높은 북한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모양새이다.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발달된 군사, 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면서 동시에 식량 생산국이다. 북한이 바라는 첨단 기술 이전 뿐 아니라 식량 및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든든한 아군이다. 러시아의 경우 한동안 심각한 포탄/탄약 부족을 겪었고, 관련 생산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전쟁지속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탄약 공급이 필요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전쟁지속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전쟁과 핵개발로 국제적인 제재 아래 있는 양국의 군사 협력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포탄/탄약 공급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지속력 향상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만큼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북한의 경우도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제약하기 위한 대북제재를 시행해왔는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전수한다면 그동안의 제재가 헛수고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군사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¹ 미국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

터 차(Victor Cha)와 엘런 김(Ellen Kim)은 북러 협력이 재래식 무기 관련 거래나 식량/에너지 지원을 넘어 위성, 핵 추진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기술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² 또한 북러 협력으로 인해 한반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 상황도 복잡해질 것이라 우려했다.³ 미국 국무부도 회담 결과를 주시하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물자 거래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 미국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러시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두만강역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10월 5일 이역에서 약 73량 규모의 화물 열차가 포착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5년간 해당 역에서 관찰된 가장 대규모의 화물 수송인데, 이 전에는 20량 이상의 화물 열차가 관찰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⁴ 또한 미 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 주간 러시아에 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나진항에서 실린 컨테이너가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하여 철도로 러시아 동남부 티호레츠크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다고 밝히

1 Bruce Klingner, “North Korea and Russia: How Far Could Their Partnership Go?”, Heritage.org (2023.09.26),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north-korea-and-russia-how-far-could-their-partnership-go>>

2 Victor Cha and Ellen Kim, “A Renewed Axis: Grow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Beyondparallel.csis.org (2023.09.06), <<https://beyondparallel.csis.org/a-renewed-axis-growing-military-cooperation-between-north-korea-and-russia/>>

3 앞의 글

4 Joshep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Dramatic Increase in DPRK-Russia Border Rail Traffic After Kim-Putin Summit”, Beyondparallel.csis.org (2023.10.06), <<https://beyondparallel.csis.org/dramatic-increase-in-dprk-russia-border-rail-traffic-after-kim-putin-summit/>>

면서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⁵ 북러 군사 협력은 앞으로의 위협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신냉전 구도의 심화와 한반도

그런데 이러한 무기 거래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주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주된 이유였다면, 러시아는 이렇게 요란하게 보스토티치에서 정상 회담을 하지 않고도 조용히 무기 거래를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⁶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러 정상회담에 내포된 군사 협력 이상의 의미와 신호는 무엇일까? 국민대 강윤희 교수는 대외적으로 양국이 우호적 관계를 과시해야 하는 이슈로서 직전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 주목한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의 협력이(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태림, 이상숙(2023)도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의도한 바를 군사 물자 확보 이상으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 목적이 크다고 분석한다.⁷ 러시아는 회담 전 푸틴이 인공위성 기술 지원 의사

5 미국 “북한, 지난달 러에 무기 제공 포착”...북러 정상회담 이전 시점, KBS뉴스 (2023.10.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2947>>

6 강윤희, “북러정상회담분석”, EAI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이슈브리핑 (2023.10.16),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166&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7 이태림, 이상숙, “2023년 러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지역 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2023-26 (2023.09.22),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234&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9월 13일, 보스토티치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양국 정상 모습>

를 표명하고 크레믈린 대변인이 민감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상당히 자극적인 언급을 이어갔다. 회담 장소 선정이나 김정은의 참관 일정도 군사 이슈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회담 이후에는 오히려 다분히 수위를 낮춘 발언들이 이어졌고,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회담 전에 비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가 북한과의 ‘위험한’ 군사협력이나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의지를 미국에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학자들이 말하는 북러 회담의 성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안드레이 코르투노프(Andrey Kortunov) 사무총장은 기고문⁸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원인으로 최근의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꼽았다. 즉 한미일의 군사 협력 강화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더욱 결속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에서 제기하는 러시아의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중국 모두 북핵 문제로 이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되는 것

8 Andrey Kortunov, “US-Japan-Sou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Pushes More Rigid Bipolar Security Arrangement in Northeast Asia” Global Times.cn (2023.09.26),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9/1298950.shtml>>

은 바라지 않으며 유엔안보리의 북핵 관련 결의를 위반했을 때 얻을 것은 별로 없는 반면 잃을 것은 많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 위험한 양극화 경향이 강화되는 대신, 과거 6자 회담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 대학 아트옴 루킨(Artyom Lukin) 교수는 38노스(38 North)에 올린 기고문⁹에서 이번 북러 관계 밀착이 러시아에게는 군사 물자 조달 외에도 북한의 일관적인 우크라이나 이슈에서의 러시아 지지, 한국이 보인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 입장에 대한 러시아의 의구심과 밀착되는 한국과 폴란드 간의 군사 교류에 대한 우려,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의 에너지·식량 자원의 교환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바탕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러시아 내에서 분석을 통해 러시아 내에서 북러 관계를 바라보는 엘리트들의 관점이 어떠한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동북아 정세를 격화시킬 북러 간 군사협력에 동조할 의사가 당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⁰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이 함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회동을 계속 해왔고, 10월에 열린 일대일로 10주년 정상 포럼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는 등 환대하고 3시간에 걸친 중러 정상 회담을 진행하는 등,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북중러가 관계를 공고히하고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국의 의중도 엿보인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번 북러 정상 회담은 단순히 무기거래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동아시아 냉랭전 구도가 강화되는 경향 속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단시일 내에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 선교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선교 현장에 미칠 어려움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점으로서 중요한 교두보이다. 그런만큼 북한 선교를 위해 사역자들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도모해왔다. 그 동안 동아시아의 선교환경은 각 국가간의 관계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다. 한인 선교사들에 대한 태도나 활동의 제약,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등 다양한 정책이 국가간 외교적 구도에 영향을 받아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냉랭전적인 구도 역시 선교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현재 러시아의 선교 환경을 살펴보자. 러시아는 흔히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국가적 전통 종교로 존중받는 반면 개신교 종교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97년 ‘신종교법’을 발효하였고, 16년에는 이를 개정하면서 테러방지법이라는 명목 하에 더욱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의 모든 종교활동은 금지되며 여기에는 개신교 활동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 밖에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허가증이 필요하며, SNS나 인터넷을 통해 신앙적 내용을 포스팅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¹¹ 21년부터는 “러시아의 영적 주권을 지키다”는 명목으로 러시아인이든 외국인인든 해외에서 훈련 받은 선교사나 목회자의 경우 국가-고백적 관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¹² 종교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외국인으로서 러시아에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종교 비자를 소지했다라도 당국의 제약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신자들을 대상으로만 설교 등 사역이 가능하다. 그런데 종교비자를 받고자 하면 현지에 정부가 인정하는 관련 기관(예를 들어 현지 교단 총회 등)의 초청장 등이 필요한데, 초청된 선교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초청 단체에도 벌금을 물리는 등 제약이 있어 종교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북한 출신 노동자나 탈북자 관련 활동은

그러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종교 비자를 받고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북한 사역을 하기란 쉽지 않다.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 등 다른 명목으로 러시아에 체류할 경우 체류 비자 발급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선교 활동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러시아에서는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이라도 설교나 전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부과 및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선교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인 선교사의 안정적인 러시아 체류, 사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 등이 필요하다. 이중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점 확대는 북러 관계 밀착의 기대 효과 중 하나이다. 향후 북한이 더 많은 노동력을 러시아로 파견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극동연방대를 방문하여 북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던 만큼, 노동자들 뿐 아니라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의 인적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러시아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사역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던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러시아의 탈북자들에 대한 입장 변화가 우려스럽다.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아왔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면 이를 근거로 난민 자격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9 Artyom Lukin, “Does Kim’s Visit to Russia Signal an End to North Korea’s Strategic Solitude?” 38North (2023.09.26), <<https://www.38north.org/2023/09/does-kims-visit-to-russia-signal-an-end-to-north-koreas-strategic-solitude/>>

10 이상근, “러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파급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465호 (2023.09.19), 6.

11 러시아 ‘신종교법’으로 개신교도 압박, 국민일보 (2017.05.04),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3741502>>

12 “Russia Tightens Grip On Foreign Missions, Requires Additional State-Authorized Education For All Pastors And Missionaries From Abroad”, Christianity Daily (2021. 06. 03), <<https://www.christianitydaily.com/news/russia-tightens-grip-foreign-missions-requires-additional-state-authorized-education.html>>

러시아에 노동자 등으로 나갔다가 이탈하여 UN에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지위를 얻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변화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북한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앞으로 러시아에서의 탈북자 처우가 더욱 엄격하게, 비협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의 입장도 어려워질 것이다. 먼저 한국 사람과의 만남을 더욱 꺼리게 될 수 있다. 또한 탈북 및 해외 망명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역 대상 북한 노동자들도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여지가 크다. 기존의 망명을 가정한 사역보다는 북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환경에서 더욱 장기적인 관계 형성과 끈기 있는 복음 제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러 관계 악화가 미칠 러시아의 한인 관련 정책 변화도 우려스럽다. 먼저 한인들의 러시아 체류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비자 발급 절차나 기준이 강화되고, 체류 기간도 제한을 두는 등 제도 자체가 어렵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암묵적인 방식의 행정지연이나 배제, 더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비자를 받더라도 한인들의 활동에 대한 전보다 더 잦은 간섭과 감시, 추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할 북한 선교 사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러시아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갖가지 어려

움을 겪고 추방당하거나 긴급탈출한 선교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적 관계가 관련 사역을 진행한 선교사들에 대한 체포와 심문 등에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왔다.¹³ 그런 만큼 악화되는 외교 환경의 부담은 상당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된 이후 한인들의 체류 환경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국제 송금 제한 등 제재로 인한 어려움 뿐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차로 인해 러시아 내 한국인들의 입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다양한 부류가 존재하고 각각의 선교 방식이 다른 가운데 러시아 사회의 주목을 끄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북한 사역이 요란하게 드러나 안전의 위협이 높아지고, 러시아 인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교회사역을 해왔던 타 한인 선교사들의 입지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사들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은 러시아의 북한 선교 환경 악화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선교에 대한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 한인 위주의 북한 선교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글에서는 러시아 현지 교회의 참여를 제안해본다. 러시아 현지 교회의 경우 비록 개신교 활동에 대한 박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북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한인들에 비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러시아 사람을 만나는 일은 러시아에서 외화 벌이를 위해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만큼, 러시아 성도들은 북한 사람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쉽고 그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장기적인 시계열로 가져갈 수 있으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이나 불안감도 낮출 수 있다. 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심이나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점도 유리한 부분이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수십 년간 박해받는 교회들을 섬겨오면서 박해받는 교회(Persecuted Church)가 다른 박해받는 교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역 경험을 가지고 이를 새로운 사역 개념(PC to PC, Persecuted Church to Persecuted Church)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 교회의 북한 선교는 이에 매우 부합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교회의 경우 개신교의 비율이 인구의 3% 수준으로서 적지 않다. 특히 공산치하에서의 심각한 박해를 이겨낸 경험과 간증을 가진, 북한의 박해 상황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교회이다. 향후 북한 노동자들이 극동 러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후 북구가 진행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의 지역에까지 파견될 것을 고려하면 러시아 현지 교회의 참여는 더욱 필수적이다.

러시아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한인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의 의식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선교는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이기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한다거나 적어도 우리가 주도해서 사역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지 한국 선교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객관적 시각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한인들의 사역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도 갑작스럽게 한인 선교사 추방 러시가 이어지면서 선교 현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최근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인 사역자들이 없더라도 현지의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품고 사역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 선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러시아에서 이루어져야 할 선교사역인 만큼 한국 교회가 모든 사역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러시아 교회가 주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자로서 나설 때 더 큰 선교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교회가 북한선교에 나서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협력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러시아 교회가 북한 선교에 나설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필요들을 채워주어야 한다. 러시아 성도들에게 북한 사람들은 경험한 체재의 유사성은 있지만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고 민족적 유대감도 없는 이방인이다. 그런 만큼 선교 대상자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 등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러시아 교회가 가

13 참조: 김진대·도문갑 편, 「선교사와 지역교회를 위한 위기사례연구 II」, 서울: 한국위기관리재단 출판부 (2016), 41-48.

북러 간 관계강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종수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우크라이나 전쟁 후 대변혁 시대가 시작되다

인류 역사는 전쟁과 평화가 씨와 날처럼 공존해 왔다. 미국 역사학자 겸 철학자인 월 듀란트는 “인류 역사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3주뿐이었다”고 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그 연장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또는 종전)후 적지 않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쟁 초기에는 NATO의 결속과 함께 G7을 주축으로 EU가 연대를 과시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할수록 중국·러시아 주도의 BRICs가 결집해 11개 회원국으로 늘고 ‘글로벌 사우스’로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팔 전쟁이 국제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돌발변수로 작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미·러 간 대리전 양상의 세계소전(The Little World War)으로 비화했다. 이·팔 전쟁도 친서방과 반서방으로 진영

화되는 분위기다. 단순히 안보차원의 신냉전 질서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기후온난화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각종 재앙이 발생한다. 이처럼 전 세계는 불확실성의 블랙홀로 함몰되면서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 북중러 북방3국이 냉전 당시보다 더 강하게 연대하고 있다. 특히 북러 간 결속은 전시 동맹 체제를 방불케 한다. 유럽과 중동 지역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과 푸틴은 왜 만났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매우 절묘했다. 첫 번째 배경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대북·대러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한미일 간 준동맹 수준의 연대를 과시하는데 따른 반작용이다. 남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로 전이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개전 초부터 유엔의 대러 비난



진 이러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교회의 사역을 위해 러시아 성도들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이중 언어로 된 전도 책자나 양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한국에서 제작된 여러 북한 선교를 위한 영상자료나 음성자료 등을 선별하여 러시아 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막이나 스크립트를 함께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선교 자료 개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교회가 러시아 내 북한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동원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북한 선교가 단순히 한국 교회만의 과업이 아닌 전세계교회의 중요한 책임임을 알리고, 이를 위해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비록 러우 전쟁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는 있지만, 구 소련 붕괴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여러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활발하게 진출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6자 회담 등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류의 기억 덕분인지 아직

까지 한러 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러시아 교회와 접촉하거나 협력을 논의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러시아 내 선교사들을 포함한 한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방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남북 문제 뿐 아니라 러우 전쟁과 신냉전이라는 국제적 어려움까지 마주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러우 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의 종단,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요청된다. 너무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국제 질서가 북한 선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의 지경은 더욱 넓어져야 한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을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딤후 2:1-2)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고 강조하며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구원과 복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평화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성명·경제제재 및 무기지원·복구 작업 참여 등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 24일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 허가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더욱 강하게 밀착하고 있다.

두 번째 배경은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개방하자마자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우선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로 직행했다. 그는 그해 4월 24일 하산(Khasan)역에 도착하자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첫 일성으로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 로드맵을 암시했다. 또한 2019년 말 북미 및 남북 간 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 새로운 길은 전통 우방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다. 지난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새로운 길’을 따라 선대의 유산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김정은과 푸틴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두 정상 간에는 정치·군사·경제 등 양국 간 현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단일패권 타파(‘제국주의 반대 투쟁’) 및 유엔의 대북·대러 제재 해제

에 대한 공조다. 두 나라는 모두 서방의 제재를 감내해야 하는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지옥 같은 서방의 제재를 13차례나 경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흑해 곡물거래를 위한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 복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북한도 장기간의 서방 제재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입장은 마찬가지다.

둘째, 군사적으로 러시아에게는 북한의 실탄·미사일·무인드론 및 노동력(유사시 병력 전환) 확보가 필요하고, 북한으로서는 군사위성·핵미사일·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단 일행에 강순남 국방상, 리병철 당 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박태성 과학교육비서, 장창하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장 등 군사 분야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한 것만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북러 간 43개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문제이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민수용 우주기술, 식량·에너지 지원, 북중러 접경 하산지역 관광인프라, 북한철도 3,500km 개보수, 북러 국경 자동차 전용도로 등이다. 제8차 러북경제공동위원회(2018.3)에서는 양국 간 협력사업 63개중에 20개가 이미 이행됐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확인했다.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러북경제공동위에서 나머지 43개 협력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다.

지난 9월 북러정상회담은 전방위적 하이브리드전의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진됐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진실’이라고

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전 세계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두 정상 간 만남은 서방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동시에 유도하는 심리전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아무튼 북러는 유엔 안보리의 위배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할 것이지만, 인공위성 등 민간기술이나 경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이다. 양국 간 군사협력 수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와 한미일 결속 정도에 좌우될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측에 불리해지면 러시아는 북한 측의 지원을 받기위해 보다 과감한 대북 군사협력을 실시할 것이며, 한미일이 더 강하게 연대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북러 간 밀착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북러 간 연대는 동맹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북한은 2021년 말부터 러시아와 철떡공조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22.2.24)을 지지했다. 러시아 점령의 돈바스공화국을 재빨리 승인했고 외교관계도 수립했다. 북한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죽 놀이하듯 쏘아대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즉 러시아는 ‘서부전선’,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부전선’을 맡는 안보 역할분담이다.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 특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즉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출구 전략’ 및 경제·핵미사일 병행의 ‘입구 전략’의 기회로 활용한다. 대내적으로는 국민

들에게 핵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간 경제 제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분출시키는 출구로 삼는다.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제재를 묵살하는 호기로 삼으면서 항미 결속을 도모하고, 냉전 당시에도 없었던 ‘좌중 우러’의 사회주의 맹방을 옆에 끼고 중국에서는 ‘쌀’, 러시아에서는 ‘총’의 시계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22년 8월 러시아가 핵사용 4개 조건을 제시하자, 2주 뒤 북한도 핵사용 5개 조건을 법제화했으며, 미국 본토 인근의 태평양 공해상으로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날릴 수 있다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돈바스산 중공업 설비 부품·밀·코크스를 수입하고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경험 구조를 활용한다.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자 10만 명 파견 및 필요시 용병지원 등을 통해 외화 획득의 기회를 노린다.

둘째, 북중러 연대는 포괄적 3자 협력보다는 사안별 양자 또는 3자 간 협력방식의 유연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북중러 3국 결속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1차적 요인으로서 '2022년 미국 군사력지수' 보고서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을 '높은 위협' 적성국으로 분류했다. 2022년 5월 미국 주도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유엔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 나아가 한미일 주도의 북한 비핵화 해법 반대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공조에 대한 ‘적대 의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대만문제·역내 미사일방어체계(TMD),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

핵화'·북한 인권문제, 러시아는 3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비판 및 우크라 지원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중이 러시아 주도의 극동·동해·북태평양상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거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비례한 북중러 3국 간 합동훈련을 실시할 개연성도 열려 있다. 한미일의 대북 군사 제재 압박 시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중러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반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특히, 중러 간 협력은 '새로운 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달려패권 타파 및 상호호혜적 경험 등 공동목표가 명확하며, 냉전 당시처럼 이념 논쟁이나 국경 분쟁의 소지는 없다. 지난 3월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 시 '2030년까지 중러 경험(8개항) 발전계획'을 합의했고 10월에는 푸틴이 '제3차 일대일로 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의 협력을 과시했다. 그렇다고 신냉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북한은 냉전으로의 회귀를 적극 환영하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북한은 냉전적 구도를 활용해 중러 간 시계추 외교를 통해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 경제권과의 커플링 체제 하에서 신냉전 회귀 시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많다. 러시아도 21세기 북극·극동개발 주도권 확보 하에 동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셋째, 직접적인 대북 선교환경은 남북한 간 대치 및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북한은 거의 2년여 간 각종 미사일을 폭죽놀이 하듯이 사방팔방으로 쏘아대고, 무인항

공기를 서울상공까지 침투시키고 있다. 남북한 간 공식 핫라인은 단절되고, 평양과기대·유진벨을 제외한 민간채널도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예상치 않는 충돌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한중수교 이후 대북 선교활동의 주 무대였던 조중 접경지역이 중국 공안의 단속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차단으로 중국 경유 탈북민들도 대폭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는 악화된 한중관계 분위기에서 지난 10월 9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선교사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포스트-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북 간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북한 근로자의 극동 진출도 활발하다. 러시아 병합의 크림반도 및 돈바스 4개주가 북한인 대상 새로운 선교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후복구를 위해 북한 노동력이 10만 명까지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다.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유엔제재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2019년 말까지 전원 철수했지만 수백여 명이 자치공화국인 압하지야에 잔류했다. 왜냐하면 압하지야는 유엔이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 제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병합의 동남부 4개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통제가 쉽지 않아 이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러시아·CIS 선교단체들이 대비책을 강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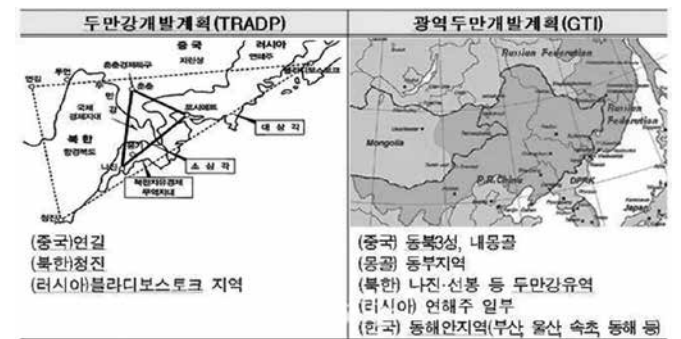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세계소전으로 확정됐고 한반도까지 전운이 감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스스로 싸움판에 끼어들고, 심지어 전쟁의 한쪽 당사자를 향해 노골적으로 샅대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정학적 단층선의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강대 강' 구도 하에 '불의 고리'로 변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우리의 머리위에서 북극·북태평양시대가 펼쳐지는 가운데 최다 핵보유 3국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다. 주변 4강의 갈등이 고조되면 한반도가 불안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반도 주변의 거인들을 상대하려면, 내가 거인이 되든가, 아니면 지혜롭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 한다. 지정학적 단층선이 비슷한 튀르키예의 이른바 '헤징(hedging)' 전략은 미래 간 양다리 정책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정학적 '쇼당(show down)'으로 역이용한다. 한국은 전 세계 유례없이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최단 시일 내 이룩한 나라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등극했다. 그렇지만 해륙국·분단국·통상국이라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족 내부의 의지와 주변국 간 역학관계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줄탁동기(掄탁同機)'의 외교적 지혜가 요구된다. 동맹관계인 미국, 전략적 동반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는 21세기 한국의 생존과

국가적 번영을 좌우하는 글로벌 강대국이다. '제로섬' 보다는 '넌제로섬'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외교 및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및 한미일 간 노골적인 연대를 자제하고, 미중·미러 관계와 한중·한러 관계의 탈동조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남북한 분단구조를 편용한 중러의 이북제남(以北制南)의 유혹을 자제시키고, 북중러와의 양자적 관계회복을 모색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고리타분한 이념논쟁이나 냉전회귀에 부화뇌동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주도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중추국이어야 한다.

북한은 광복 78년간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및 경험 중단 등 민족 내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지대 협력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두만강 하구에 초국경 자유경제지대 조성을 제안한다. 이 지역은 구한말부터 한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해 한인촌을 형성했다. 크라스키노를 비롯한 한인들의 유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스칼라피노 교수(캘리포니아대)는 북중러 접경의 두만강 하구를 '천혜의 경제지대'로 평가했다. 1991년부터 유



〈두만강개발계획(TRADP)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 범위. (기획재정부)〉

엔의 두만강개발계획(UNDP→GTI)이 진행돼 왔으나 답보상태다. ‘두만강하구 평화경제지대’ 전 단계로서 ‘북중러 접경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한러 간 추진(2022.3.1.선포식)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보류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북·대러 제재가 지속되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우선 주력하고, 점진적으로 한국형 4차 산업 배후단지 조성 및 역사·문화·생태산업 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 항공교통의 사각지대인 두만강하구에 초국경 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철도, 항만, 육상과 항공을 결합한 복합운송기능(Tri-port)을 구축해야 한다. 모범 사례로서 갈등과 분쟁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메트로폴리탄으로 변화시킨 유럽의 바젤국제공항(EuroAirport)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러의 대북한 영향력을 순기능적으로 활용해 북한을 개혁·개방시키고 국제공동체 일원으로 편입시켜 평화통일의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두만강하구는 수도 평양으로부터 원거리에 있고 러중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접경지대로서 외부사조 유입에 의한 북한체제 붕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유엔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상된 유엔의 기능을 회복하고 북중러 대 한중일 신냉전의 갈등을 해소하는 완충지대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완성 신북방정책(나인브릿지 사업)을 지속하고 두만강하구의 국제평화지대 건설을 통해 113년전 안중근 의사가 꿈꾸던 ‘동양평화론’을 구현해야 한다. 지난 3월 모스크바 푸틴-시진핑 정상회담이후 중러 간 훈춘-하산 자루비노항 연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지난 4월 10일 코제마코 연해주 지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하산지역 도로와 철도, 전력기반 인프라 관련 추가예산을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하산역에 도착해서 러시아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코제마코 연해주 지사와 북러 간 관광·농업 및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공동사업을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후속조치로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에 이어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조율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북방 3국과의 정부관계 악화 상황에서 민간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북아(한반도) 전이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러시아 정교회와 연대하는 선교방식이 바람직하다. 러시아 내 선교활동은 러시아 정교회가 장벽이자 협력대상이다. 선교사 활동이 러시아 정교회 교리와 배치될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신고당할 수 있다. 모스크바 선교단체들이 러시아 정교회와 공동으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던 경험 있다. 전쟁 상황임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



〈2020년 4월 20일 평양의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성삼위일체교회)에서 부활절 성찬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화회복을 위한 합동기도회를 공동 집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 우호적이다.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정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2002년 극동 방문 시 이콘을 선물받은 후 정교회를 수용하고 평양에 정교회 교회(삼위일체교회)를 건립했다. 또한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성공적인 사례로서 국내 모 교회는 관련 현지 건물 개보수 작업에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러시아 돈바스지역은 북한과 원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할 것으로 보이며,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각종 복구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채용해 접촉기회를 넓힐 수 있다.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전쟁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마감된다. 왜 ‘만군의 왕 여호와’의 이름인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역대하 20:15)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13) 전쟁의 성패는 ‘만군의 왕’에 맡기고, 우리는 전쟁 희생자에 대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내는 구제가 전부가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필자는 지난 7월에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했다.

원폭투하의 현장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기독교인의 집단순교지가 있다. 임진왜란 말기인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고, 그해 2월 5일 신부 6명을 포함한 일본인 기리스탄(크리스찬의 일본식 표기) 26명이 나가사키의 작은 언덕위에서 집단으로 순교했다. 최연소 순교자는 12세 소년 성 루도비코 이바라키였는데, 그는 체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외치면서 사제들과 함께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순교자적 입장에서 유럽의 ‘전쟁 위기’가 한반도의 ‘평화 기회’로 반전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러-북관계 밀착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지난 10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김정은과 만나 1시간 이상 대화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의하면 김정은은 라브로프에게 “지난 9월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한 이후 양국의 진정한 우호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분위기가 매우 좋고 양국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면서 라브로프도 “북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위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지난 9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직후 푸틴-김정은은 정상회담에서 그 어떤 합의 문서에서 서명한 일이 없다고 했던 러시아 측 주장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러-북 정상회담에서 군사는 물론, 경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합의했고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푸틴의 방북 여부이다. 라브로프와 김정은 간에는 이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무기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 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는 “근거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에 도착한 직후 열린 환영연회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우 전쟁을 말함)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아 미 백악관의 발표가 사실임을 자인한 셈이다.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는 유엔안보리 다수의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국제평화와 안보를 파괴하는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닥친 더욱 큰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필요한 군사기술이나 장비를 공급했을 경우다. 우크라이나에서 곤경에 처한 푸틴을 도운 김정은에게 반대급부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바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이다. 푸틴은 당시 북한의 위성개발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이곳에서 만난 이유가 북한의 위성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러-북이 밀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밀착 간 어떤 거래가 오갈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국제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제목을 제시하려고 한다.

푸틴과 김정은의 동병상련(同病相憐)

러-북 간 밀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촉발된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국제질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전을 선언하고 이른바 정면돌파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정은을 적극 지지 지원하는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푸틴-김정은 간 밀착을 가져오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다. 이로써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다. 단기간 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푸틴의 계산이 빗나가면서 매우 고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는 푸틴과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총비서와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관람하고 있다 (노동신문)〉

떨어지면서 전례 없는 불법적인 밀착 행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푸틴의 속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심각한 탄약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번 비행기 사고(푸틴의 사주로 의심)로 사망한 와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역시 러시아 군 당국이 약속한 탄약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맞서 점령지 방어라는 수세적 상황에 몰려있는 러시아군이 탄약류 등의 보급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방어선이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러시아에 탄약류를 비롯한 소모성 군사 보급을 즉각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군사협력과 지원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내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구소련(러시아의 전



〈미 백악관이 공개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이송을 대기중인 컨테이너의 모습〉

신)에 의해 탄생되었고 군사지원을 받아온 북한은 대부분 러시아와 동일한 규격의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한 분량의 재고와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나 러시아와 북한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철도나 동해로 연결된 루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수송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지지하는 나라는 벨라루스 등 몇 되지 않는데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시종일관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에서 미국과 대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함께 반미/반서방 연대의 좋은 파트너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의 재건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의 속내

비핵화를 구실로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대북 제재를 풀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 보려 했던 전술적 변신이 실패한 후, 김정은은 자력갱생의 노선을 고집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

은 더해만 갔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중 갈등으로 비롯된 새로운 세계질서에 편승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했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국경이 개방되면서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협력과 푸틴과의 만남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지난해부터 은밀하게 러시아에 대한 탄약 지원을 시행해 온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사협력 시도를 본격화했다.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막아주는 북한의 방패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그가 소원하는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과정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9월 푸틴과 만나는 일정에 북한군 핵심인사들을 대동했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물론,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전투기 공장, 블라디보스토크의 공군 및 해군기지 등을 방문했다. 그의 뇌리 속에는 금년 들어 두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 기술,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전수받고, 경제문제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동향과 전망

북한은 지난 9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보냈고, 러시아도 반대급부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월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인도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최근 몇 주간 북한은 러시아에 1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러시아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이 지난달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했으며, 컨테이너는 여기서 철도로 러시아 서남부 티노레츠크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는데 이 탄약고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곳이다. 미 NSC는 9월 7~8일 북한 나진항 부두에 20ft 표준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약 300개가 쌓여 있는 사진 등 3장을 공개했다. 이처럼 러-북은 국제사회가 뭐라 해도 아랑곳 않고 노골적인 불법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물자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인도한 초기물량의 부분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증거가 없다”면서 불법 거래에 대해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불법행위는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푸틴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득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러시아로서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존재감과 영향을 확대할 수 있고,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자국의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다는 계산 또한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필수적인 군사기술을 얼마나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지,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러시아-북한 간 밀착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김정은이 원하는 바대로 백년대계로 발전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심한 부침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등 국제질서의 변화 또한 러-북 밀착 지속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단 북한이 제공한 탄약은 그 양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숨통을 넓혀주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물량 1천 톤에 이어 앞으로 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이 탄약들은 우크라이나 인명 살상 및 파괴에 사용될 것이고, 유럽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푸틴이 반대급부로 김정은에 긴요한 군사 정찰위성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건조 및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 두둔하고 비핵화

북러 관계 밀착과 선교현장 전망

장 태 산 (현장 사역자)

최근 국제정세는 온통 전쟁과 난리 소문으로 가득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사상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민간인 사상자도 1만 명에 육박했고 난민은 8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중동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를 감행하고 민간인들을 납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전쟁을 선포해서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하마스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20여명이 인질로 잡혀갔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교전으로 불과 며칠만에 5,000명 이상이 숨졌고 난민은 140만 명이 발생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개입으로 학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란까지도 개입을 저울질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갈등이 경제를 넘어서서 군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도 나오는 상태이다. 항간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사태 속에서 북한의 존재감이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북

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군사, 위성 분야에 상호 협력할 것을 공언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재래식 무기의 러시아 영토로의 이동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 중에 북한제가 발견되었고 하마스 무장단체의 패러글라이드나 땅굴 기술이 북한에서 전수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란과는 핵무기 개발 및 무기 거래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북한은 중국과도 밀착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 단둥에는 다시 북중 교류가 재개된 것이 관찰되었으며 10월 초에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재중 북한난민 600명을 북송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사실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밀착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구 소련과 중국은 6.25 전쟁에 북한을 도운 동맹으로서 북한 역사 초기부터 혈맹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잠시 소원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 다시 북한과 밀착관계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특별히 러시아는

를 방해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무력화, 나아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중, 러, 북 3각 반미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합동 군사연습 등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 나갈 경우 더욱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방향

우리로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러-북 간 불법 무기거래 등 밀착 관계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외교부도 불법행위를 이어간다면 한러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을 천명했다. 이처럼 러-북간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불법성을 부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러-북간 밀착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안보위험을 충분히 계산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동맹국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 역량이 고도화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등 확보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탄약을 지속 제공한다면 우리 또한 비살상무기 지원에 국한된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북한 간의 불법 거래가 반드시 그들에게 뼈아픈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국제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첫째, 푸틴과 김정은 간의 밀착과 불법무기 거래가 조기에 좌절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불법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초래될 위험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아울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도 공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둘째, 불법 무기거래가 초래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특히나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개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도록, 나아가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침공 과정에서 북한이 전수한 땅굴기술과 각종 무기 탄약 등 위협의 고리를 단절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푸틴이 김정은에게 군사위성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제공 등 위험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 민주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자.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제재 속에서도 북한과 비공식적인 경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군사적 협력관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은 러시아와 북한의 비공식적 밀착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앞으로 북한선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한 그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국제제제와 북한의 대응

북한과 러시아는 소련시대 때부터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를 파견해왔다. 김일성 집권기에는 한 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지원해 준 소련에 대한 채무 보상으로 노동력을 파견했다. 김정일 집권기에는 90년대 중반 어려워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화벌이 목적으로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했다. 초기에는 주로 벌목공이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건설 노동자를 많이 파견했다.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선 후에는 국제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을 장려했다. 업종도 단순 건설 노동자에서 컴퓨터 전문가, 미술가, 요식업, 의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외화벌이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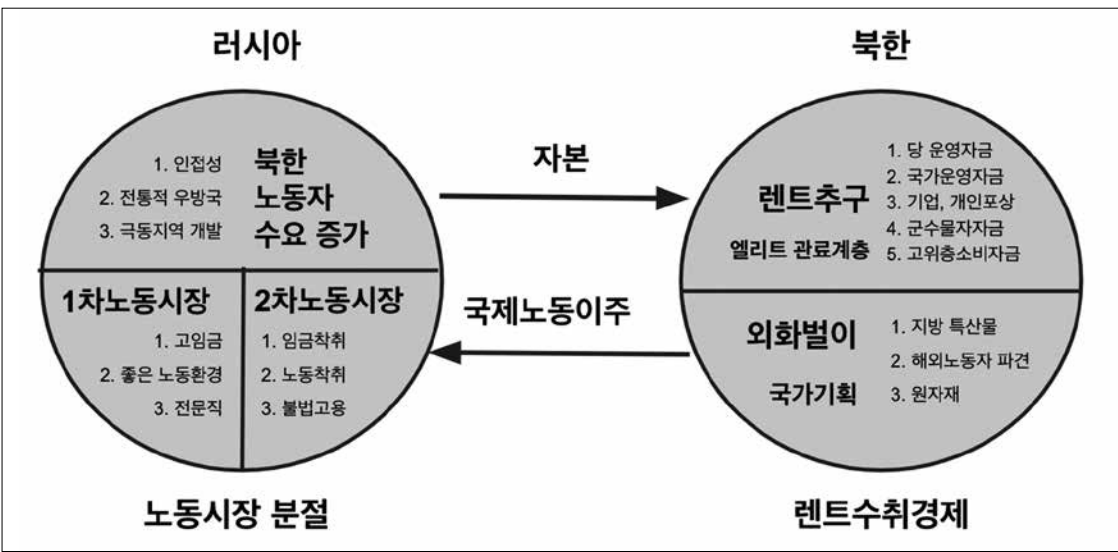
그러나 2016년 11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가 결의되면서부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도가 심해졌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신규취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에서는 2019년 12월 22

일까지 모든 해외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국제제재를 시행하였다. 게다가 2020년 2월에 시작된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은 북한의 공식적인 회화벌이 사업을 중단시켰다.

북한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그해 4월에는 남북정상 회담에 참여하고, 2018년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을, 2019년 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에 북한의 행보는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해 외화를 확보했다. 2022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5000만 달러(약 607억원)를 해킹하였고, 2022년 11월 미 국토안보부 보고서에서는 지난 2년 동안 10억 달러(약 1조 3160억원)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를 탈취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2.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밀착

2019년 9월 5일 평양 주재 알렉산도르 마체코라 러시아 대사는 유엔 국제제재 2397호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한 명도 남김 없이 송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내에서 불법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2022년 10월 유엔 안보리



〈북한과 러시아의 비공식 경제 밀착관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여전히 북한 노동자의 불법 외화벌이가 성행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경제적 밀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필요와 러시아의 필요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매달리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경제구조에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국가계획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북한 내에서는 렌트수탈경제(rentier economy)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렌트수탈경제란 북한 내 비생산 계층인 소수 엘리트 관계계층이 자신들의 정치권력과 특권을 이용해 경제적 수탈을 하는 경제를 말한다. 엘리트 계층은 정치 권력을 사용해 국가 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불로소득

을 얻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 이렇게 획득한 부는 새로운 투자나 경제발전에 쓰이는 대신 특권층의 사치성 소비와 특권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북한은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소득을 외부에 의존한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를 보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지방 특산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누에고치 가공품이다. 2위를 차지하는 것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수입으로서 전체 수입의 20%에 달한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석탄, 광물, 목재 가공품과 같은 원자재 수출이다. 그 외에 잣, 산열매, 산나물, 약초 등도 외화벌이 작물로 마구 채취되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1차 산업과 노동력에 의존한 것으로 생산성이 낮은 북한 경제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러시아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외화벌이 수입원이다. 이렇게 획득한 수입은 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Korea Times)〉

한주민의 생활향상에 쓰이거나 경제개발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당 운영자금, 국가 운영자금, 군수물자 자금, 기관기업소와 간부포상, 고위층 소비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외화벌이 소득은 북한의 엘리트 정치권력 계층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실제 수입의 90%를 국가 계획금으로 바치고 10%만 받으며 그마저도 숙식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탈당한다.

러시아가 국제제재 속에서 북한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러시아의 국내 노동시장은 외부 노동자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다. 경제가 발달한 국가들이 그러하듯 러시아 역시 노동환경이 좋고 임금이 높은 정규직이 있는 1차 노동시장은 주로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한편, 임금이 낮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은 러시아인들이 기피하는 노동시장 분절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모스크바,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입업

및 건설현장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데, 주로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동맹국 노동자들이나 중국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은 숙련도가 낮을 뿐 아니라 통제 또한 어려웠다. 또한 중국 노동자들은 폭발적 유입으로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불법 체류자 및 범죄 증가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극동지역의 중국화를 경계하는 중국위협론이 대두되면서 중국 노동자 유입을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북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러시아에서 더 선호한다. 첫째, 러시아는 북한의 접경지역에 있어 노동자 공급이 수월하다. 둘째,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부터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김일성 시대부터 오랜 노동자 파견 역사가 있다. 셋째, 러시아는 극동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많이 유입되었던 중국 노동자를 대체할 대상으로 북한 노동자를 선호한다. 북한 노동자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싸고 기술이 뛰어나며 작업 속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노동자 신규 입국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2375호가 채택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노동자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를 차지했다는 러시아 통계청 자료가 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은밀한 비공식 경제밀착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을 갖는 작동체계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밀월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가시적인 정치 군사적 협력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탈출구로,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서로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밀착관계가 더 진전되면 소위 공생관계로까지 발전될지도 모른다.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의 전쟁승리를 돕고, 러시아는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이 탈되지 않기 위해 이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권위주의 정권유지와 미중 패권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관계 상황은 마치 한반도가 50년대로 돌아간 듯한 기시감을 갖게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레이더를 바짝 세워서 역사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한다.

3. 러시아의 탈북난민에 대한 태도 변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변화는 탈북난민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난민에 대해 중국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은 재중 탈북난민을 한번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월경자로 규정했다. 그리하여 탈북난민이 발견되면 북중우호조약에 기

초하여 복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제사회가 중국 내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하며 무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인정하는 편이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활동을 인정했고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 기업소를 탈출하여 유엔에 난민신청을 하면 러시아 경찰은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실제로 그동안 러시아 탈북난민 사역현장에서 러시아가 북한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탈북민 A의 경우 탈출 후 유엔에 임시난민증을 받아서 이동하는 중에 북한 보위원 사주를 받은 러시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출동한 유엔 변호사에 의해 안전하게 인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북한 외화벌이 기업소에는 항상 담당 보위원이 있다. 북한 노동자가 탈출할 경우 러시아 경찰에서 수배령을 내리는데 주로 강간, 공금횡령 등의 죄를 뒤집어씌워서 수배한다. 이때 현상수배금은 10,000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은퇴 경찰이나 부패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 경찰 전산망을 이용하여 탈출한 북한난민을 체포 또는 납치하려고 애쓴다. 탈북민 A의 경우도 이러한 전산망에 의해 위치가 발각되어 결국 체포되었는데, 유엔이 경찰에게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유엔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게 때문이다. 탈북민 B는 탈출 후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적십자 건물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그 위치를 발견한 북한 보위원에 의해 강간범으로 고발당했다. 유엔난민기구 변호사는 프랑스 유럽인권재

판소(ECHR)에 의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 보위부는 그를 납치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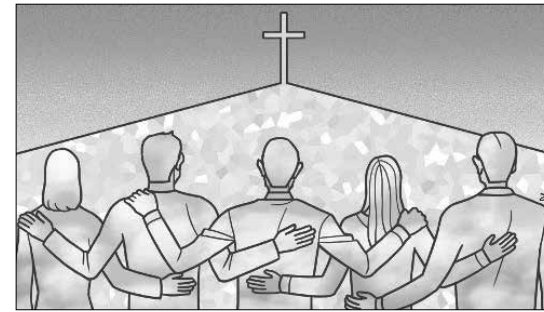
이러한 사례들은 러시아 내에 그동안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이 인정되고 존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그 기류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으로 북한난민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보호하던 현지 사역자는 러시아 정보기관(FSB)의 방문을 받았다. 그리고 난민증을 받고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던 북한난민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또 다시 유엔을 돕는다면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동안 북한 보위부는 러시아 경찰에게 뇌물을 주며 은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난민을 색출하려고 했지만, 러시아 정부와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북한난민에 대해서는 보호권을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비록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이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예전보다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다. 러시아 내에서 사역했던 선교단체와 NGO들도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 중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북한난민을 도울 수 있었던 상황이 악화되어 이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또한 냉랭한 남북관계로 인해 강화된 내부단속으로 외화벌이 기업소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 내 북한사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으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4. 러시아를 통한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갈기갈기 찢겨진 독일을 통일국가로 빚어내는데 초석을 쌓았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지도자란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이 지나갈 때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패권갈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을 보면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발자국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전 장소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는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청년들과 모여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내지의 사역 대부분을 강제로 중단케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나, 침묵의 3년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바로 ‘리셋(reset)’의 시간이었다. 열심히 작동하는 하던 컴퓨터가 어느덧 파일이 하나씩 쌓여가고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기가 온다. 그때는 바로 리셋, 즉 초기화해야 하는 시기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초기화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예전의 사역으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우리가 받은 말씀은 ‘새 술은 새 부대에(New Wine, New Skin)’이라는 말씀이었다. 새 술은 하나님의 새



로운 전략을 뜻한다. 새 부대는 그 전략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말한다. 우리는 러시아를 새로운 전략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발걸음은 북한 내부로 향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코로나가 끝나면 북한이 다시 조금씩 문을 열 것이다. 그러나 그 문은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열릴 것이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를 향한 문이다. 북러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밀착은 북러 국경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발걸음을 감지할 수 있는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첫째, 전 세계에서 북한에 부르심을 가진 다음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유럽과 미국에 치우쳐져 있던 데서 벗어나 아시아와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 사람이 아닌 글로벌교회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북한에 가는 것이다. 기존의 미국과 유럽이 아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북한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바로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중국에 있는 조선족, 일본에 있는 재일조선인, 몽골, 필리핀, 아시아에서 북한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 그

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영성과 열정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한국교회는 이제 겸손하게 그들을 파트너로 삼고 협력해야 한다. 둘째,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사역자들 간의 연합, 한국교회와 글로벌교회와의 연합에 대한 갈망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현장 사역자, 교회 지도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삼각동맹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베테랑 현장사역자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주기 위해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해줘야 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는 글로벌교회 지도자들과 연합하여 재정과 기도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 교육, 복지,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창의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을 해야 한다. 나는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새 부대가 될 것이다. ☺

이끄심

11화 - 하나님의 시간표

김 서 윤 전도사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다. 오래 기다려 온 순간이었기에 여러 가지 꿈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영사관님처럼 현찰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만 살고 있을 것 같은 한국에 간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두 번의 환승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피로도 지루함도 없는 오직 꿈과 희망뿐이었다. 한국에 도착하자 사복 입은 국정원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게이트를 이용해서 나온 우리들은 공항에 대기 중이던 검은 봉고차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체 말이다.

처음 국정원 생활은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며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게 하는 등 운동하는 시간도 주고, 저녁이면 TV도 자유롭게 보게 하고 소등이 되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라디오 방송도 틀어주곤 했다. 또 일주일에 한번 맛있는 과자들을 나눠 먹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과자는 정말 맛있었다 (그때 먹어본 과자에는 고소미, 오징어 땅콩, 양파링, 자갈치 등등이었다). 또 매일 밤마다 자그마한 창문 밖에 보이는 빨간 십자가들을 세어보며 무료함도 달래보았다. 처음엔 그 많은 빨간 십자가 사이에 초록 십자가

를 보며 어디가 병원인가 했는데 누가 빨간 십자가는 교회라고 알려줬다. 나는 설레기 시작했다. 교회는 자유의 몸이 되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중국에서 만났던 순자 이모도 주일이면 가시던 곳이었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느껴졌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되었다. 국정원은 우리 가족이 함께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각자 독방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는 A4용지 한 뭉텅이를 앞에 놓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쓰라고 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쓰라고 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부터 시작해서 고향, 친구, 학교 선생님 이름, 지역, 단짝의 이름 등등 빠짐없이 쓰라고 했다. 나는 독방에 홀로 앉아 나의 일대기를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빨리 쓰고 나갈 심정으로 몇날 며칠을 밤새 종이를 붙들고 앉아 써 내려갔다.

그렇게 국정원에서는 우리 세모녀의 글이 다 취합될 때까지 기다렸고, 취합된 글을 다 검토한 이후, 다음 단계인 일대일 취조로 들어갔다. 아마도

한 사람씩 불러내어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시간에 취조하는 것 같았다. 그 기간 동안 어머니와 여동생과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나와 마주 앉은 취조관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과 말투로 취조를 진행하였다. 그때의 기억 속의 나는 죄를 짓고 남한에 들어온 죄수와 같았다. 영화에서처럼 담배 연기와 니코틴 냄새로 가득 매운 방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이름… 생년월일…” 한 여름인데도 차가운 공기 속에 컴퓨터 타자 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존칭, 호칭 다 생략하고 다짜고짜 시작된 조사에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약 보름이 넘도록 독방에 갇혀 누구와도 말을 섞어보지 못했던 나는 얼마 만에 하는 사람과 대화가 기뻐 그만 자동으로 웃음이 새어나왔던 것이다. 그러자 분위기는 매우 싸늘했고 지금 웃을 분위기냐며 호통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무언가 꼬이기 시작했다.

취조가 이어지던 중 소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이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 이름을 모르는 게 말이 돼 이 녀석아?!” 라며 분위기가 더욱 삭막해지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 어릴 적 기억이기도 했고, 소학교 1학년 당시 담임 선생님은 잠깐 계시다가 출산휴가를 가셨고, 다른 선생님이 임시로 담임을 하시는 등 담임 선생님들이 몇 번 바뀌어서 담임 선생님 성함이 통 기억이 나질 않았다. “너에게 그렇게 잘 해주셨다는 선생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나도 답답했다.

문제는 질문 하나 답변하지 못한 것이 내 정체성을 의심하는 추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긴

침묵과 함께 담배 한 대를 다 태운 조사관은 이런 가설을 내세웠다. “너는 중국인이고 북한에서 학교를 다녀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이름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중국을 더 잘 알고 말하는 역량과 발음도 중국인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순간 나조차도 내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몇날 며칠을 똑같은 질문에서 제자리걸음이 이어졌고, 그 문제에 완전히 꽂혀버린 담당 취조관은 지금이라도 솔직히 털어놓으면 중국에 잘 보내 주겠다는 식으로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답답함에 차라리 죽고 싶었다. 죽어서라도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속 시원한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나중에 보니 여군 출신이셨던 어머니는 스파이가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으셨고, 여동생과 나는 중국에서 주워온 아이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그럴듯한 소설 하나가 똑딱 만들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약속이나 한 듯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명백할 것이 아니냐며 당당히 말했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약 한 달이라는 긴 조사 끝에 최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결국 취조는 잘 정리가 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거짓으로 뒤집어진 우리 마음의 뒷수습은 온전히 각자가 이겨내야 할 몫이었다. 마지막으로 취조관은 A4용지를 내밀며 앞으로 한국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써 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네 꿈이 무엇이냐고?”하며 묻는 그 얼굴에 나는 호기롭게 대답했다. “저는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혼내줄 거예요.” 취조관의 얼굴이

상기되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정원 취조관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겠지만, 나에게 국정원은 탈북민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써 존중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

이제 우리 모녀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지만, 허탈하기가 그지없었고, ‘하나원’이라는 기관이 남았다는 것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하나원은 남한 정착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곳이고 그곳을 걸쳐야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나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며 모범생처럼 살았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와 여동생은 선생님들께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열심히 임했다. 나는 호기롭게 국정원 취조관에게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했던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법대는 기초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가기에 문턱이 너무 높았고, 변호사가 되려면 많은 준비와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고, 이를 위해 시간적·금전적 투자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인 나에게 브로커에게 갚아야 할 돈에다가 학원에 갈 돈까지는 없었기에 법대는 깔끔하게 포기해야만 했다.

그래도 꿈에만 그리던 대학생활이 눈앞에 있었다. 빨리 대학교에 가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런 심리가 3개월 만에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어떤 정보도 없이 단지 대학생이 되고 싶었던 나는 대안학교에 있던 선배들에게 들은 ‘외대 중국어학과’가 있다는 말

에 솔깃했다. ‘중국어’는 남한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자신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참에 대학교에 들어가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서를 넣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고 해도 아무 준비 없이 딸랑 검정고시 합격증만 가지고는 대학교에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리가 없었기에 떨어졌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검정고시 패스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외의 준비를 하지 못한 나의 실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힘이 쭉 빠졌지만 그렇다고 내년에 재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루 종일 PC방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려 가며 대학교들의 수시와 정시 마감 일정을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시마감이 내일 오후 5시까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해의 마지막 정시마감이 숙대였던 것이다. 하루 만에 급하게 서류들을 준비하고 자소서와 추천서까지 받아 원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1차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다.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외국어 특별전형 지원자들의 면접날이 다가왔다. 다섯 분의 교수님들께서 면접관으로 앉아 계셨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다. 약 4분 가까이 준비해온 자기소개에 중문과 교수님들은 높은 점수를 주셨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대생이 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이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시경쟁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어든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와 같았다. 맨 땅에 헤딩하듯 공부 잘하는 그녀들을 쫓아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난생 처음 해 보는 수강신청에 월~금요일까지 들쭉날쭉 지체롭지 못한 시간표를 들고 하루 종일 학교에 대기 했다. 1교시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아침 7시부터 출근길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곳에 몸을 싣고 아침부터 부리나케 오르막과 계단을 뛰어 다녔던 기억은 참으로 행복하고 두 번 다시 없을 소중한 캠퍼스 생활이었다. 그렇게 4년 동안 훌륭한 지도 교수님을 만났고, 좋은 학우들을 만났다. 숙명여대를 대표하는 앰버서더(ambassador)활동도 참여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졸업할 때가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중간에 휴학도 하고 교환학생으로 외국에도 다녀오고 스펙을 쌓고 컴퓨터 학원부터 랭귀지 학원까지 다닐 때, 나는 그저 학교생활을 쫓아가기에도 바빴다. 그제야 나는 정보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사회에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꿈에 부풀어 이 땅을 밟았지만, 이끌어 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 불리한 조건(disability)을 가진 이 사회의 낙오자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곳에 뿌리가 없음이 불만(handicap)이었다. 알량한 자격지심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살았다. 대학교 4년 내내 탈북민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도 없었고, 몰라도 아는 척 넘어가야 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나의 공허함을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라는 건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 생활동안 나는 매주 교회는 나갔다. 청년부에서 찬양부에서 섬기며 예배를 참석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깊이 없이, 사모함도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다. 웃고 떠들고 마냥 좋은 사람 인척 하며 온갖 가면들을 쓰고 교회에 나오는 나

란 사람을 바라보면 다시금 회의감에 빠졌다. 일주일 중 주일에는 행복한 척 웃고 떠들었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을 쳇바퀴 속에 살았고, 집 학교 도서관이 나의 최대 활동 영역이었다. 교회에 가더라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하는 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나는 온통 거짓 속에 감추어져 살았다. 지금 돌아보면 뿌연 안개 속에 나는 갇혀 있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배경도 없었던 나는 우리말로 쓰여진 성경일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의 뜻은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쭙 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믿음이 더 커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는 말이었다. 나는 크게 실망했다. 아마도 목사님은 나에게 장난처럼 하신 말씀이겠지만 나는 시험에 들고 말았다.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도태되었다. 나는 분명 꿈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다. 또 그 자격지심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나는 종교니 뭐니 다 제쳐두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대학교 4년 동안 내가 잘 한 일을 돌아보자면 학교를 대표하는 앰버서더(ambassador)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선배님들께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역하는 자리에 참석하다가 선배님을 통해 주로 중국 여행객의 국내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업계에서도 상당히 큰 여행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좋게 보신 대표이사

님의 빠른 결정으로 순탄하고도 빠르게 정식 가이드가 되었다. 뒤에서는 나에 대해 최소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조선족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은 매우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만 했다. 그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기로 더 버텼다. 나이도 어렸고 여자라는 이유로 또 조선족이라는 오해로 나의 입지는 좁았기에 실력으로 인정받는 수밖에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서러움에 많이도 울었다. 어떤 날은 ‘조선족인 주제에 한국인척 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듣고 억울함에 한 숨도 못 자고 운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나는 탈북민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도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난 사실 북한에서 왔어’라고 밝히면 너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시선이 두려웠고,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싫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차별 받는 것이 싫었기에 더 밝히기가 싫었다.

그렇게 악바리 기질을 발휘하여 인정받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다. 고객의 컴플레인도 용납할 수 없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날밤을 세어가며 준비했다. 고궁 투어가 있는 날에는 드라마까지 되감아 보며 재미나는 고궁 관련 에피소드를 준비해 갔다. 만나기 전부터 손님들 이름과 나이를 외우고 첫 만남부터 고객들 이름을 일일이 외워서 불러주면서 얼굴과 매치하여 그들을 기억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식사를 잘 못 하면 밤새 죽을 만들어서 다음 날 가져다주는 등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을 나만의 무기로 만들었다. 그렇게 애쓰자 고객들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나를 자랑스러운 가이드로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여행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고 몇 년 뒤 좋은 조건에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새로 옮긴 여행사는 비록 신생회사였지만,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고 쉬는 날 없이 여러 대형 행사들로 정신없이 일정이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도중 발생한 고객의 사고가 나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손님이 화장실 가던 중 넘어지면서 골반 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수습해야 하지만 회사의 여력이 부족하여 인력이 부족했다. 환자의 입원 수속과 나머지 관광객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나는 과부하가 걸릴 뻔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대책 없이 이번 일을 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알아서 처리하길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다행히 행사는 큰 차질 없이 마무리 되었고, 다친 고객도 잘 수습하여 귀국시켰다. 이번 일은 그동안 쉽 없이 달려온 나에게 일종의 브레이크가 되었다.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던 나는 3개월 쉬겠다고 통보하고 힐링을 핑계로 한국을 떠나 먼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휴가는 3개월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늘어져 결국 1년을 온전히 여행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주 잊고 살았다. 한국에 가기 싫을 만큼 그곳이 좋았다. 나중에는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외국에서의 소위 말하는 옴로(YOLO,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산다는 뜻의 신조어)의 삶을 살았다. 외국에서는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동안 한국에서 쌓은 가이드 내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연봉이 증명했다. 나는 결핍과

공허함을 돈과 커리어로 채웠고, 겉모습만 우아한 ‘한 마리 백조’ 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끊임없이 두 발을 휘젓고 있는 것과 같은 백조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뒤처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었던 나는 악착같이 자기관리를 해가며 인간관계를 넓혀 나갔다. 나의 언어 능력은 큰 장점이 되었고, 나중에는 유명 인사들과 대기업 임원들을 모시는 VIP 특별 의전가이드까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자아도취에 흠뻑 취해 살았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믿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아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고독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인가? 화려함 속에서 일이 끝나도 텅 빈 집에 아무도 없는 어두움만이 나를 반겼다. 자다가 일어나면 베개를 꺼안고 서럽게 울기도 많이 울었다. 어디에 있어도 내 마음 한편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결핍을 일 욕심으로 채웠다. 그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이 밀려오기 전까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제 나는 과거의 교만과 알량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내 자아가 얼마나 부끄럽고 거짓이었는지 말할 수 있다. 조선족이라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했던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죄에서 왔음을 인정한다. 수년 동안 나를 발목 잡고 있었던 출신에 대한 핸디캡(handicap)이 나에게 불리한 조건(disability)이 아니었음을,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능력(power),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이다. 예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 주신 구세주이셨다. 육체적으로 가진 장애는 없었지만 이 사회에서 스스로 장애(disability)를 겪고 있던 나를 놀랍게도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틈(gap)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셨다. ‘탈북민’이라는 수식어를 나에게 불리한 조건(handicap)이라고 여겼던 것에서 감사함(grateful)으로 바꿔주신 것도 예수님이셨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깨지지 않는 자아 속에서 고집스러움과 피로가 나를 가득 지배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했던 과거를 회개하며 나아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전 5:17) 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덧입었다. 돌고 돌아 이제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갔다. (계속) 

중, 탈북민 600여명 강제 복송 추정



북한 인권 관련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중국이 아시안 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10월 9일 저녁 탈북민들을 비밀리에 대거 복송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10월 9일 밤 8시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강제 복송이 지난 8월

말 버스 2대로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고, 아시안 게임 폐막 후 대규모 이송으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천600명의 복송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시민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도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9일 탈북민들이 비밀리에 강제복송되었다고 밝혔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복송이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RFA(10월 11일) 외 언론 보도 종합>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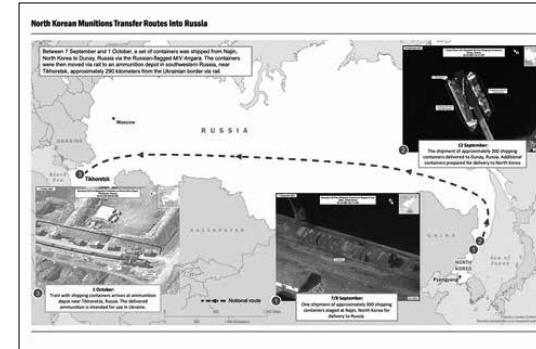
헌재는 9월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여러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북한인데 위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전단 살포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인들의 견해를 충분히 표명될 수 있으며, 남북합의서 존속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 등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관련하여 통일부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9월 26일) 외 언론 보도 종합>

미 “북, 러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무기 지원”



<美 정부가 공개한 북러 무기 운송 사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월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1천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이 9월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했으며, 컨테이너는 여기서 철도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서남부 티호레츠크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다.

미 정부는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하면서 앞으로 북러 무기 거래를 돕는 이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물자나 기술 등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참고: 연합뉴스(10월 14일)>

중러 정상회담 진행... 러 외무장관은 북한 방문



<중러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서명 후 악수하는 시진핑과 푸틴(좌),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는 김정은(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18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시진핑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감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화와 협상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한반도 평화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히 미국 주도의 대

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포함되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월 18~19일 양일간 북한을 공식방문하였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을 가지고, 최신희 북한 외무상과도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문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러시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북중러 3국간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례적인 대화 개최를 지지하고, 한미일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미국이 핵 관련 전략적 시설 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미NGO “북, 핵실험장에 강제노역 동원의혹… 비핵화 때 검증해야”



〈위성에 포착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로와 16호 화성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를 잇는 도로들 (출처=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0월 16일(현지시간) '16호 관리소와 풍계리' 보고서에서 상업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1번 터널에서 16호 관리소(화성 수용소) 주변까지 5.2km 길이의 비포장 도로가 존재한다"며 "이 도로는 2005년 이후 모든 위

성 사진에서 관측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근대적 착굴 기구가 극도로 부재하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을 위해선 중장비 이외에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며 "두 시설이 인접한 데다가 수용소에 최소 2만명의 수감자가 확보된 만큼 이들이 강제 노역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해당 도로는 북한 인권과 안보 이슈의 강력한 결합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목했다. 수용소 수감자들이 핵시설 관련 노역에 동원되었거나 북한이 핵실험장 관련 장비를 인근 수용소 지역에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용소에 대한 검증 없이는 비핵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참고: 연합뉴스 (10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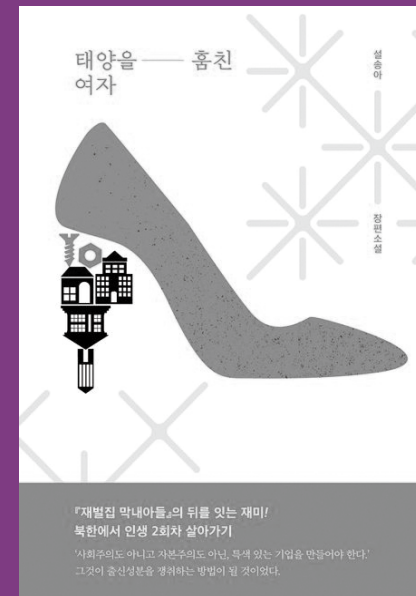
북 일가족 4명 목선 귀순 “너무 배고파서...살려고 왔다”



〈10월 24일, 해경이 북한 일가족 4명이 타고온 목선을 인양하고 있다(연합 뉴스TV=조선닷컴)〉

북한 주민 4명이 10월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오다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다. 30대 성인 남자 1명과 그의 아내, 딸,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등 일가족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리 군경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태양을 훔친 여자
저자: 설송아
출판사: 자음과 모음
발행일: 2023년 5월 31일
가격: 17,000원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을 찾아보다 보면 북한 관련 도서들 중 다수가 사회과학적인 글이나 탈북자들의 수기, 북한 방문자들의 르포 기사 등 사실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도서가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북한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도 여럿 출간되고 있다. 문학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따질 순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경험과 북한 사회의 분위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몰입할 수 있게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 소개할 책, “태양을 훔친 여자”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이 책은 북한여성 봄순이 2015년에 죽음을 맞이하고 17년 전인 1998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한

다. 북한 관련 도서에서 일종의 ‘시간여행’ 개념을 적용한 것이 흥미롭다. 이 책은 이러한 ‘과거로의 회기’라는 장치를 통해 한 여성의 두 모습을 비교하며 북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과거의 봄순은 고난의 행군에 이은 시장화 그리고 여성의 지위변화라는 북한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적 북한의 어머니 상을 추구하는 여성이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봄순의 유일한 소망이자 하나 뿐인 딸인 미애는 실수로 양젖물을 들이키지만,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러한 처절한 삶 가운데 남편 철욱은 철저

히 방관자의 자세를 유지한다. 철욱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우연히 김일성 무릎에 앉게 되어 하루아침에 ‘접견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직접 접견한 사람)의 신분을 얻은 인물이다. 철욱 역시 접견자의 손자라는 좋은 출신성분을 타고났다. 그는 아내의 경제력에 기생하면서도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아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한다. 구한말 ‘딸각발이’, ‘화랑의 후예’로 대표되는, 세태의 변천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분에 연연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여타 시간여행 소설이 그렇듯이 미래를 경험하고 과거로 돌아간 봄순은 북한사회에 일어날 변화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 그녀는 사업에 뛰어들어 송편을 팔고, 연료를 팔며 사업을 확장하여 결국 주유소를 열고 다시 새로운 사업인 항생제 제조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다. 이 과정에서 봄순은 업계의 핵심 인물, 권력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이전 생에서 과거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던 당 비서 승재,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낸 다정한 동네 오빠 우진, 험상궂은 외모를 지녔지만 시원시원한 태도의 동찬 등 악연과 인연이 교차한다. 봄순은 경쟁자들의 견제를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남편이 판 함정에 빠지기도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여 사업가로만 성공할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까지 얻게 된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여성인 과거의 봄순은 북한사회에서 ‘을종의 을’이다. 그녀는 사회에 진출하여 남성들

의 짝퉁의 대상이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학대당하며 묵묵히 가정을 돌본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난의 행군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목숨도 잃는다. 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지금의 봄순은 좋지 않은 출신성분과 남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일찍 사업에 뛰어들어서 기업을 일구어가는 소위 여장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사업의 확장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는 판단력과 단호함을 갖춘 인물로 성장해간다. 예전의 봄순과 지금의 봄순은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마당 활성화로 이어지는 변동기 북한 여성의 두 단면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박경리의 말을 주목할 만하다. 박경리의 소설을 따라다닌 비판 중 ‘박경리의 소설은 모두 이상하리만치 모든 이야기를 여성들이 이끌어간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그의 대표작 《토지》, 《김약국의 딸들》 등은 모두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남성은 거들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박경리는 한국의 가정에서 가장의 결핍이 제공하는 서사적 배경에 주목한다. 즉, 가장이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할 때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며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근현대 상황에 있어서 ‘남성의 부재 혹은 결핍’으로 인해 여성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자체가 드라마틱한 서사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작가 본인은 그러한 상황을 영리하게 활용한다는 말이다.

북한 출신 작가들의 글들을 보면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탈북

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작가 중에도 여성 작가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이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사회가 갖게 되는 특징과 더욱 깊은 관련이 있다. ‘남성의 부재 혹은 결핍’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가 북한이다. 직장 단위에 출근도장을 찍어야 하는 남성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어도 직장에 매여 있어야 한다. 이는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들에 대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며 조소하는 ‘낮전등’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이유이다. 결국 남성의 부재와 결핍이 전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된 북한은 박경리의 소설에서와 같이 수많은 여성 주인공이 탄생하기 매우 유리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주인공의 첫째 유형은 과거의 봄순이 대표하는, 소용도 없는 낮전등도 전등이라 알고 살아가며 가족을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이고, 둘째 유형은 지금의 봄순과 같이 북한의 생활전선에 있어서 남성의 결핍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주어진 ‘밤전등’의 역할을 재빨리 파악하고 적응하며 사업을 일구는 성공담의 주인공이다.

북한 여성을 연구한 역사학자 김태우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찰진한 서시는 인문학의 여러 분과 중에서도 ‘문학’이 빛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역사학 또한 문화사·미시사·일상사·심성사적 연구를 통해 특정 시대 사람들의 일상과 사상을 세밀하게 묘사해 내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문학작

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특정 시대와 공간으로의 상상적 전이(轉移)나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천착에까지 다다르는 데는 명백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19쪽). 이는 북한출신 작가들의 자전적 소설에 그대로 적용된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담긴 소설들은 인간성의 옹호와 탐구, 그리고 즐거움 제공이라는 소설 본연의 기능에 더하여 ‘북한이라는 공간으로의 상상적 전이(轉移)나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천착’을 제공하는 자료로 기능한다.

이 책은 남한사회에 알려진 대표적인 북한 여성의 두 이미지 모두를 보여준다. 궁핍한 생활 가운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에 절망하는 북한여성 그리고 변하는 시류에 적응하며 시장의 중심에 다가가는 북한여성의 이미지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인공 봄순에게 몰입하여 독자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북한 여성 봄순에게로의 상상적 전이(轉移)와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천착이며 북한사회의 단면일 것이다. 북한 사회와 여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오늘 소개하는 “태양을 훔친 여자”와 같은 소설을 통한 즐거운 몰입을 기대하며 관심 있는 독자의 일독을 권한다. ☞

1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급속도로 밀착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양국 관계 밀착은 단순히 양국간의 문제가 아닌 군사 협력을 통한 탄약 거래와 첨단 무기 기술 지원 등이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러우 전쟁 장기화와 대북 제재의 무력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약화되고 군사적 협력 시도가 제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우 전쟁 장기화나 북한을 위시한 핵군비경쟁 심화 등이 억제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 러시아의 북한선교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안 러시아는 비록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공식/비공식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해왔고 러시아로 파견된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조심스럽게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유엔난민기구의 확인을 받은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망명을 인정하는 등 타 북한 우방국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외교적 역학관계 변화는 러시아의 북한 선교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됩니다. 한러 관계가 안정되어 선교사님들의 체류와 활동에 더 큰 제약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대규모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사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러시아 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의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현지 교회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 외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도 현지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도 있습니다. 해당 교회들의 규모나 역량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박해를 이겨내고 생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 파견된 북한 사람과의 접촉도 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들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를 북한 선교로 동원하고 언어나 문화이해 등의 측면에서 돕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소외 계층 북한 서민들의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 추위는 남한에 비해 심하며 특히 북부 산악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혹독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90년대 이후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사용 등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며 에너지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북한 서민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러 건의 지하교회 적발 및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연일 사상 통제와 종교 박해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9일 중국에 수감중이던 6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복송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복송당하는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 및 선교사 접촉 여부 등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7 해외 북한선교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의 관영매체 CCTV는 북한이 9월 25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9월 21에는 왕야진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달 21일 북한의 정성일 국가관광총국장과 최경철 보건상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 단체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규모의 관영목적의 왕래만 포착되고 있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코로나 대유행과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선교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원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3년 10월 31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합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